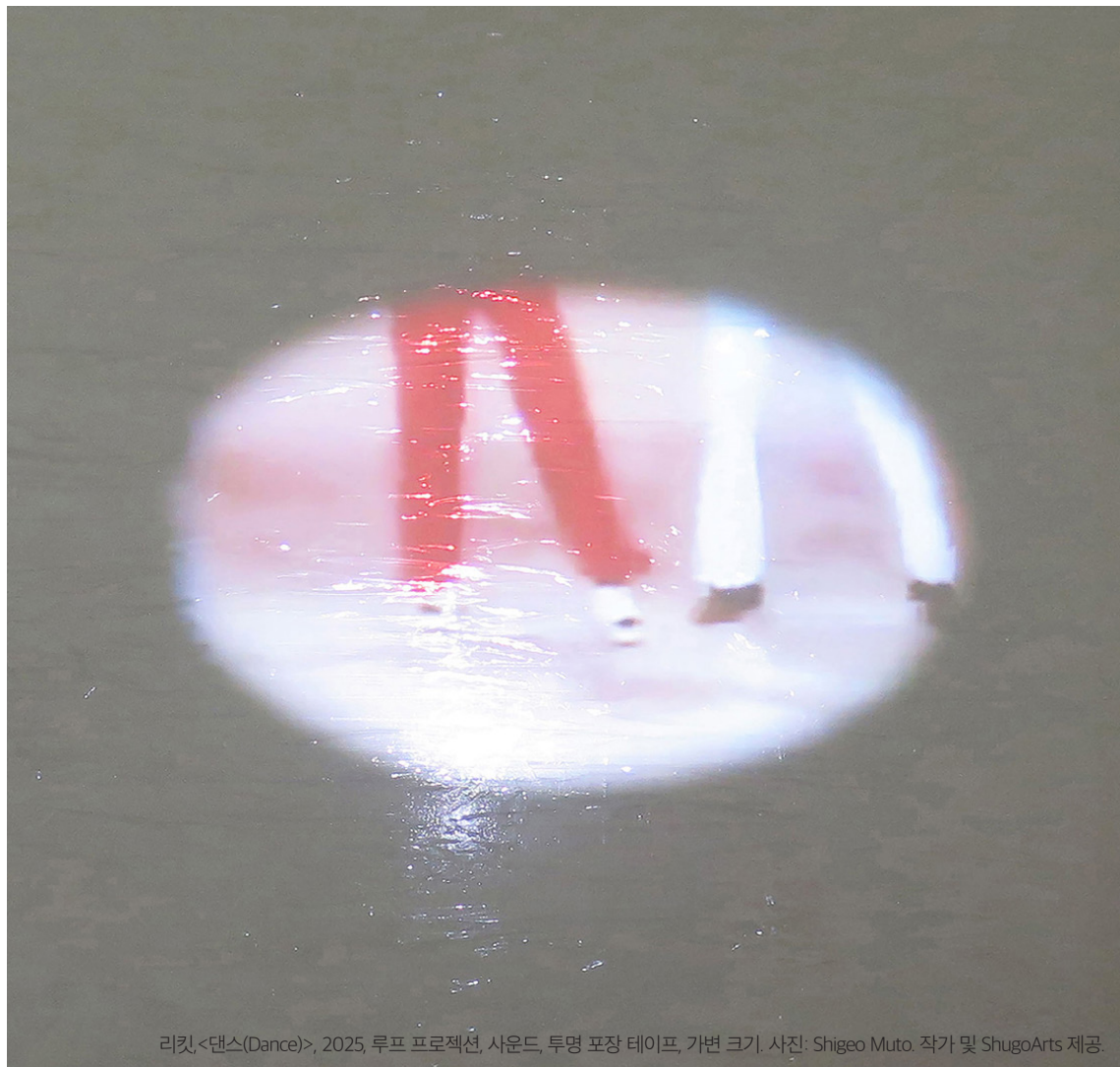




리킷 <댄스(Dance)>, 2025, 루프 프로젝션, 사운드, 투명 포장 테이프, 가변 크기. 사진: Shigeo Muto. 작가 및 ShugoArts 제공.

이수그룹 X 류현진재단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 체결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특별 기고
곽재식 교수

이수챌린지페스타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6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36기 신입사원

이수텍스트업
요즘 가장 힙한 일, 천천히 읽고 손으로 쓰는 일

ISU PLACE
리킷의 개인전 《곧 흘러가 버릴 날들을 천천히 곱씹으며》

CONTENTS



04 김상범 회장 현장 경영

06 Focus & News

10 이수그룹 X 류현진재단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 체결

14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특별 기고
곽재식 교수
“당신은 사실 인공지능의 아침에 속고 있다”
감성에서 강한 인공지능, 이성에서 약한 인공지능

22 이수챌린지페스타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6 현장

32 Young ISU
공채 36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38 이수인의 반려생활, 이수펫갤러리
권순우 선임(이수페타시스 노사협력팀)

40 이수 플레이리스트
멀리 가는 향기, 인생 음악 공유해요!
전지운 선임(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주현주 사원(이수앱지스 CMC팀 분석파트)
최재웅 선임(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44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이준경 책임(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최민지 대리(이수앱지스 R&D전략팀)
전재현 대리(이수건설 CM팀)

48 이수더지니어스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52 이수텍스트힙
요즘 가장 힙한 일, 천천히 읽고 손으로 쓰는 일

56 이수 테이블
한 그릇에 담긴 여름 바다
- 물회

62 ISU PLACE
리킷 개인전
<곤 홀러가 버릴 날들을 천천히 곱씹으며>

67 이수 간식 창고
간식 서프라이즈 - 우리 팀에게 쓰세요!

69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70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영상과 빛, 사운드, 텍스트,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일상의 감각과 정서를 섬세하게 포착해 온 리킷의 개인전 <곤 홀러가 버릴 날들을 천천히 곱씹으며>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6년 여름호 통권 125호	
발행일	2026년 7월 20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이신유 02-590-6811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신원·안인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선아·이하연)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수진) 이수건설(강나영)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앱지스(양예슬)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김상범 회장 현장 경영



iM뱅크 대구 본점에 설치된 고(故) 김준성 명예회장의 흉상을 둘러보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오른쪽),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왼쪽 첫 번째).

뿌리를 기리고, 미래를 살피다

김상범 회장은 지난 6월 12일 대구를 찾아 iM뱅크 대구 본점과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이수그룹의 역사적 뿌리를 기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 경영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iM뱅크 대구 본점 방문, 고(故) 김준성 명예회장 흉상 설치 기념

김상범 회장은 대구 수성동 iM뱅크 (구. 대구은행) 본점을 방문해 이수그룹 명예회장이자 대구은행 초대은행장이었던 고(故) 김준성 명예회장의 흉상 설치를 기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범 회장,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을 비롯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준성 명예회장은 1967년 대구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창설하고 초대은행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1975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지내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故) 김준성 명예회장의 초상화와 전시 자료를 살펴보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에서 진행 중인 투자 현황을 점검한 김상범 회장과 그룹사 임직원들.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 방문, 미래 투자 현장 점검

김상범 회장은 창립 37주년을 맞은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상범 회장,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이수페타시스 최창복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사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이수페타시스는 5공장과 6공장에 약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PCB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수페타시스 대구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

(주)이수

이수그룹,
삼성 라이온즈와
2년 연속 스폰서십 체결



이수그룹은 지난 4월 22일 삼성 라이온즈와 2년 연속 스폰서십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수그룹 관계자와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 배찬승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수그룹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내 1·3루 테이블석 랩핑 광고, 본부석 LED 광고, 스윙박스 25인실(스카이박스) 등에 이수그룹 브랜드와 ‘이수그룹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찾는 팬들은 1·3루 테이블석(총 1,386석)에서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 엠블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수그룹은 팬들과 함께 응원하며 자연스러운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수화학

동명이수화학 방문 및
동사회 개최



이수화학은 지난 5월 김동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산둥동명이수화학을 방문했습니다. 산둥동명이수화학은 이수화학과 동명석화가 공동 설립한 중국 현지 합자법인으로, MEK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동명이수의 2025년 주요 성과와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상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개최한 동사회에 참석해 현지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명이수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Li₂S Mother Plant
조기 준공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지난해 8월 착공한 황화리튬(Li₂S) 상업화 플랜트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준공했습니다. 이번 플랜트는 초기 연산 150톤 규모로 설계됐으며, 향후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최대 500톤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구축된 것으로 시운전을 통해 설비 및 품질의 안정성을 점검한 뒤 본격적인 상업 생산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속식 공법과 자동화 설비가 적용돼 대량 생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균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황화리튬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가족 초청 행사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4월 25일과 6월 27일 직원 가족 초청 행사인 <이수페타시스 가족의 날>을 통해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을 비롯해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차수별 약 100명이 참석해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행사는 최창복 대표이사와 오욱헌 공장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샌드아트 공연 관람, 가족사진 촬영, 현장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족들은 임직원이 어떤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지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임직원들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수건설

목동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
방문



이수건설은 지난 4월 29일 김학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목동 LH참여형 가로 주택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목동 현장은 총 2개동 85세대, 연면적 3,436평 규모의 프로젝트로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9호선 염창역 역세권과 올림픽대로 인접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학봉 대표이사는 현장을 순회하며 주요 공정별 진행 상황, 안전시설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방병원 소장 이하 전 직원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시스템

전사 AI 역량 강화 위한
바이브코딩 집체교육
진행



이수시스템은 급변하는 AI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AI 역량 강화 및 최신 AI 톨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바이브코딩 집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KOSTA(한국SW기술진흥협회)와 협약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4회 개최됐으며, 사내 많은 개발 인력이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AI를 활용 중인 개발자들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수시스템 AI 센터는 전사 AI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개발 직군 대상 맞춤형 AI 활용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AI 센터와 사내 교육 담당자는 앞으로도 구성원 역량 강화와 업무 생산성 향상에 힘을 계획합니다.

이수앱지스

파브리병
인식 개선 캠페인,
전문의 100여 명 동참



이수앱지스가 의료진과 함께 파브리병 환우를 응원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 “다들 하나, 기부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문의 100여 명이 참여해 환우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지원을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기부식에는 유준수 이수앱지스 대표와 정진항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치료 환경 개선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유준수 대표는 “환우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의료진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우분들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앱지스

‘2026 리더 워크숍’
개최



이수앱지스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곤지암 리조트에서 경영진과 팀·파트장 등 전사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모색하고, ‘기업가치는 모든 부서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리더들은 부서별 액션 플래닝과 ‘리더십 컴팩트 선언(1인 1약속)’을 통해 하반기 성과 창출을 다짐했으며, 유준수 대표이사는 핵심가치 ‘도전’의 3가지 CoC인 ‘익숙함을 의심하고(Challenge Assumptions), 기준을 높이며(Raise The Bar), 일단 행동하자(Act First)’의 현장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 체결 유소년 야구와 지속가능한 동행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 협약식에 참석한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과 류현진재단 류현진 이사장.

지난 6월 29일, 이수그룹은 류현진재단과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유소년 야구 인재 육성과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수그룹은 류현진재단의 자선골프대회, 유소년 야구 지원 사업, 야구캠프 등 주요 사업에 함께하며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스포츠 CSR 실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선골프대회에서 시작된 인연, 손잡고 함께하는 미래로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유소년 야구 유망주 육성과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이라는 뜻깊은 취지에 공감한 이수그룹은 류현진재단의 자선골프대회를 후원하며 나눔의 첫걸음을 함께했습니다.



2024년에 이어 이수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함께한 2025 류현진재단 자선골프대회 현장.

이때 맺은 인연을 계기로,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은 2025년 5월 26일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자선골프대회, 유소년 야구대회, 야구캠프, 야구용품 지원 등 재단의 핵심 프로그램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수그룹이 공식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제2회 '2025 류현진재단 자선골프대회'에는 스포츠·연예계 셀럽 130여 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18홀 샷건 방식의 라운딩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후원금 전달식이 이어졌으며,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의 사인 유니폼과 소장품이 출품된 자선경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매 수익금과 대회 기부금은 유소년 야구 꿈나무 장학금과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등 류현진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되며, 스포츠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의 협력은 일회성 후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행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유소년 선수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탬 예정입니다.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이 함께한
찾아가는 베이스볼 Dream
현장 스케치

'2025 찾아가는 베이스볼 Dream' 행사에 함께한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류현진재단 류현진 이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류현진재단의 후원사업에 엔진을 다는 이수그룹
이수그룹은 류현진재단의 주요 유소년 야구 지원 사업에 함께하며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야구부에 훈련용품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베이스볼 Dream'을 통해 배트와 야구공 등 필수 용품을 지원하고, 재능기부형 일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소년 선수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또한 '제2회 2025 류현진재단 유소년 야구캠프 CAMP RYU99'와 2026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토너먼트로 진행된 '제1회 류현진배 중학야구대회'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소년 선수들이 전문 코칭과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며, 유망주 발굴과 중학 야구 활성화에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2회 2025 유소년 야구캠프 'CAMP RYU99'.



'제1회 류현진배 중학야구대회'.



스폰서십의 주요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 실무진.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 미래를 만드는 후원으로

지난해 주요 사업을 함께하며 장기 협력의 기반을 다진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은 올해도 유소년 야구 지원 사업을 비롯해 자선골프대회,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 등 핵심 프로그램 전반에서 동행을 이어갑니다. 실전 경험 제공과 훈련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소년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유소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그룹은 앞으로도 꿈을 키우는 동행이자 미래를 만드는 후원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와 류현진재단 류현진 이사장, 양측 실무진이 함께한
협약식 단체 사진.



이수그룹과 류현진재단의 2년 연속 메인 스폰서십 체결 현장.

“
당신은 사실
인공지능의
아침에 속고 있다
”

감성에서 강한 인공지능,
이성에서 약한 인공지능

곽재식 교수



이수그룹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는 ‘차세대 배터리, AI, 바이오’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사보에서는 핵심 사업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시선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곽재식 교수의 기고를 통해 LLM 인공지능의 ‘아침’ 문제를 짚고,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활용 태도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곽재식 교수
송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과학기술과 사회, 미래
변화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가.
<약력>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사
- KAIST 대학원 화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협동
과정 박사
<주요 저서>
『모든 것이 양자 이론』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한국 괴물 백과』 등



ChatGPT, Gemini, Claude 등은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에 속한다.

한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하면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은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다. LLM은 말하듯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널리 쓰이고 있는 ChatGPT, Gemini, Claude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한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인기는 굉장히 높다. 작년 5월에는 이중 한 프로그램의 유료 가입자 숫자가 한국이 세계 2위라는 기사가 실려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LLM 방식의 인공지능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 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침을 잘한다는 것은 거의 LLM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LLM의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모르고 사용한다. 그것은 바로 LLM이 시코판시(sycophancy), 즉 아침 문제를 갖고 있다는 문제다. 당장 널리 사용되는 LLM에게 한국어로 “한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질문해 보자. 그러면 대부분의 LLM이 장황하게 한국의 장점에 대해 말한다. 한국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좋은 나라고 기술 수준이 높은 곳이고 요즘에는 문화적 영향력도 크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LLM은 사용자가 듣기 좋은 답을 해주며 끝없이 아첨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단점은 분단국가로 안보 위협이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할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단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나는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한국에 장점만 많고 단점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공지능 LLM 프로그램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대다수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곧 한국인들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LLM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기분 좋게 사용해야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프로그램이다. LLM을 학습시키는 가장 밑바탕부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니, LLM은 기분 좋은 말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즉, 아첨을 잘한다는 것은 거의 LLM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이다. 어떠한 신념도, 양심도 없는 프로그램일 뿐인

인공지능 LLM은 그야말로 아무런 영혼 없이 사용자가 그럴듯하게 여길 만한 이야기를 해주며 끝도 없이 아첨해 줄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듣기 좋은 말을 먼저 해 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국인이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어본다면 어지간하면 장점 위주로 많은 이야기를 해 줄 것이다. 어쩌면 약간의 아첨이란 예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냉철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가질 때가 많다. 과거에 기계가 동작하는 기준이나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은 객관적이고 냉철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말조차도 괜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정보라고 오해하기가 쉽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람보다도 더욱더 아첨을 잘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자꾸 깜빡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SF 영화나 만화 같은 곳에서 무던히도 많이 반복되곤 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SF를 보면 로봇이 사람 주인공과 함께 다니면서 단조로운 목소리로 “사람의 감정을 이해 못 하겠군요.” “감정이라는 것은 참 비효율적인 것이군요.” “왜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것 같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요?”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상상하기에 계산과 정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 마음을 흥내 내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넘겨 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온 지금, 그러한 옛 상상은 그야말로 뒤쳐진 옛 생각일 뿐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에 속 드는 말투로 언제나 내가 좋아할 말을 해 주는 법을 잘도 알아낸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내 비위를 잘 맞춰 주기로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훨씬 더 뛰어나다. 나아가 요즘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친절함을 느낀다거나,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하면서 팍팍한 삶에 힘을 얻는다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과 너무나 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인공지능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배우자를 보고 마치 배우자가 인공지능과 바람이 난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비밀을 훨씬 더 잘 털어놓곤 한다. 새벽 2시에 고민거리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게 말을 걸어 상담을 하는 일이라면 이부자리 속에서 전화기만 꺼내면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이지만 노인 요양원 같은 곳에서 조사를 해 보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사람이 일상생활을 도와주기보다는, 같은 일을 해 주는 로봇이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의견을 주는 노인들의 숫자가 대체로 어느 곳이든 더 많다. 로봇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편하다는 이야기다.

인공지능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편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시대에는 미래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은 기계가 줄 수 없는 따뜻한 감성이나 포근한 인간성을 장점으로 키워서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다르다. 인공지능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인공지능이 더 편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항상 아침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에서 말싸움이 나면 종종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내 말이 맞다더라.” “인공지능한테만 물어봐도 네 말은 뿌리부터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매우 기세등등해져 있으며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훌륭한 논쟁 방법을 찾아냈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많이, 깊게 나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그 생각에 근거가 충분하며, 상대방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기분 좋게 비위를 맞춰 주며 아침해 주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길게 나누다 보면 누구든 자신의 말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요즘 어떤 조직의 높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요즘 젊은 신입 직원들은 생각보다 너무 무능한데,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 보면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신입 직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게 될 때가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나는 이 역시도 아마 그 조직의 높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신입 직원들은 잘 주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은 잘 주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한다. 그 또한 바로 아침이다.

아침은 아침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서도 은근한 형태로 자주 발생한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거나 어떤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하면 간혹이지만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내어 놓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런 정리된 결과가 워낙 깔끔하고 보기 좋기에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그 결과를 그대로 믿고 쓰고 싶을 때가 생긴다. 인공지능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취향을 고려해서 내 구미에 맞는 결과를 잘 준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던 바로 그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주기 때문에 너무나 믿고 싶은 마음에 그 자료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나 중요한 자료, 치명적인 자료일수록 인공지능이 보여 주는 숫자, 사실, 논리는 꼭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한다. 컴퓨터가 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숫자와 사실은 정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공지능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냉철하지도 않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은 부족한 결과를 내어 놓을 때가 있다.



LLM은 사용자가 듣고 싶은 말을 객관적이고 냉철한 답변처럼 제시할 수 있다.

99번 맞는 결과 사이에 섞인 한 번의 틀린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내가 괜히 인공지능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ChatGPT, Gemini, Claude 모두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맨 아랫줄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재확인하라.”고 분명히 써 두고 있다. 그런데도 아침을 잘해서 믿고 싶은 결과를 끼워 넣어 보여 주다 보니, 사람이 그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던데요.”라고 말하고 싶어진다는 뜻이다. 나는 주변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 분석 결과, 도표, 검색해서 알려 주는 내용을 무작정 믿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다. 99번 맞는 결과 사이에 섞인 한 번의 틀린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판단을 내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일수록 객관적으로 좋은 결과를 준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꼭 객관적이고 냉철한 것처럼 꾸며서 말해 주는 재주가 뛰어날 수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가”, “어느 직원을 승진시켜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투자 대상이나 직원을 추천해 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투자 대상과 직원을 골라 준다. 그리고 그에 대해 그럴듯한 객관적인 듯한 느낌의 이유를 잘 붙여 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종목을 추천해 달라”라고 물어봐도 정말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종목보다는 이유를 말해 주었을 때 내가 그만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쉽게 믿을 만한 종목을 잘 골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아침 문제도 결국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침과 그에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에게 속고, 인공지능을 오해할 수 있는 함정들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위험이다. 그리고 보면 한국인에게 그렇게 LLM 인공지능이 인기가 있다는 것도, 그만큼 한국인들이 아침에 약하고 나아가 아침에 목말라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Q&A

AI 시대,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AI 기술의 실무 적용과 업무 변화,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이수페타시스 임직원들이 객재식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첨단 IT 제조 현장에서 마주한 변화와 고민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이혜림 책임
이수페타시스
기획팀

“데이터만 제공하면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AI의 매력 덕분에, 저 역시 실무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똑똑한 AI가 내 업무를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협력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또한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류 전반의 지식 습득 능력이 오히려 퇴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통찰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장진영 책임
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완전 자동화될 업무 유형은 무엇이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기술적 시점은 언제쯤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한국은 산업 현장의 자동화, 로봇 도입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많이 진행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산업 각 분야에서 진행된 자동화, 로봇 도입의 방향이 더 빨리,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의 로봇 도입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로봇 도입이 많은 분야인데 이런 분야, 비슷한 분야의 로봇 도입은 그대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이유로 어려워진다면 국내의 공장 대신에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다른 나라에 공장을 대신 설립하는 방향으로 자동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시점은 어느 순간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5년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소영 선임
이수페타시스
중대재해관리팀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AI의 오판이나 시스템 오류가 오히려 새로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될 경우, 법적·윤리적 책임 구조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제조 실무 현장에서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AI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까요?”

이미 한국은 자동화 로봇 장치에 의한 사람의 부상, 사망 사고가 연간 3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경향은 이미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령 체계가 갖고 있는 사고 대책 방향은 어찌 되었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체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서 안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대해 찬반양론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을 줄이고 극복하고 그 장점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때 인공지능 사고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도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챌린지페스타

그룹 출범 30주년,
스포츠 CSR의
새 지평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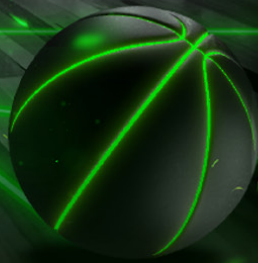
ISU
CHALLENGE
FESTA
W

ISU
CHALLENGE
FESTA
3x3

2026.05.29-05.31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이수챌린지페스타 중계
SBS Sports



스포츠·테크·아트컬처로 더 많은 시민과 호흡한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6'.

대회 5주년, 스포츠·테크·아트컬처가 어우러진 시민 축제

국내 최대 규모의 3X3 농구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5회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6>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시청역 아스트로하이 체육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에서 열렸으며, 시민들과 함께한 도심형 스포츠 행사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수그룹 출범 30주년이자 이수챌린지페스타 창설 5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입니다. 이번 대회는 'ALL Connected, NEW Arena'라는 슬로건 아래 3X3 농구의 역동성에 비주얼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해 모두가 연결되는 축제 콘텐츠를 구현했습니다.

이수챌린지페스타는 2019년 출범 초기에는 3X3 농구 대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음악 공연, 그래피티 아트, 체험형 콘텐츠, 브랜드 협업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콘텐츠로 발전해 왔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테크 요소까지 더해지며 스포츠·테크·아트컬처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페스티벌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방식의 몰입과경험을 선보인 국내 최초 디지털 아레나, LED 코트 '이수 아레나'.

국내 최초 LED 코트, 타임스퀘어를 밝히다!

올해 이철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국내 최초 LED 코트와 대형 LED 게이트 연출이었습니다. 미래형 스포츠 공간 콘셉트인 '이수 아레나'를 농구 골대, 코트 라인, 그래피티 아트, 조명 연출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해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연출과 시각 효과가 영등포 타임스퀘어 한복판을 압도적인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 바꾸며,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경기 무대를, 관람객에게는 색다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LED 코트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점검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약 2개월간 전문가와 함께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선수들이 직접 코트 위를 뛰어보는 과정을 거쳐 미끄럼과 이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부터 당일 오전까지 이어진 설치 작업 역시 완성도 높은 '이수 아레나'를 구현하기 위한 숨은 노력이었습니다.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경기도농구협회 석희광 사무장은 LED 코트를 "이수그룹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수그룹 관계자 역시 "매년 슬로건을 다르게 가져가며 발전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LED 코트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시각 효과를 극대화해 관람객과 선수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 그래픽 연출.



O/X가 표시된 LED 구역으로 이동하며 퀴즈에 참여하는 시민들.

온 가족이 함께 즐긴 거대한 LED 놀이터

LED 코트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 공간**으로도 활약했습니다. 바닥 LED 스크린 위에 표시된 구역에서 슛을 던져 제한 시간 내 가장 많은 골을 넣는 ‘LED 슛 타임어택’, MC가 내는 문제에 따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구역으로 이동하는 ‘O/X 퀴즈’ 등이 진행되며 시민들이 ‘이수 아레나’ 위에서 직접 뛰고 즐겼습니다.

코트 주변에는 이수 아카이브 패키지, 농구공, 미니볼 등 이수그룹 굿즈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뽑기 이벤트도 마련돼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관객들과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 좋은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바닥 LED 스크린 위에서 펼쳐진 시민 참여 이벤트 ‘LED 슛 타임어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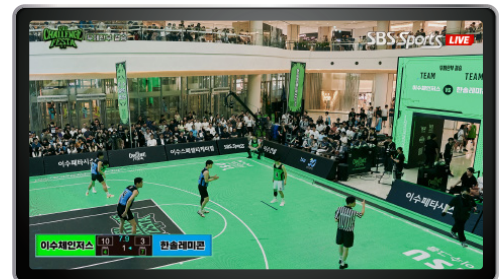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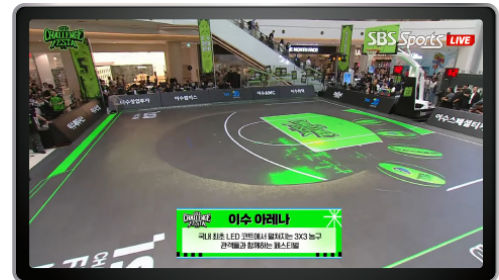


올해도 이어진 SBS스포츠 TV 생중계

지난해 이수챌린지페스타는 아마추어 농구 대회 최초로 SBS스포츠 TV 생중계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역시 SBS스포츠를 통해 이준혁 캐스터와 박찬웅 해설위원이 함께한 준결승과 결승전이 생중계됐으며, SBS스포츠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당일 오후 9시 TV 녹화 중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준혁 캐스터는 “작년에도 중계를 하면서 깊은 인상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LED 코트가 생겨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평했습니다. 박찬웅 해설위원 또한 “이수챌린지페스타는 농구 대회를 넘어 도심 속 축제 분위기라 해설하는 것이 즐겁다”고 전했습니다.

농구계 관계자 역시 대회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 대회 심판을 맡은 홍기환 심판은 “대중들에게 농구를 알리고 저변을 넓히는 데 의미가 큰 대회”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BS스포츠를 통해 현장의 열기를 전한 이수챌린지페스타 생중계 화면.



전국 아마추어 농구인을 한자리에

총상금 1,600만 원이 걸린 올해 대회에는 대학일반부 24팀과 무제한부 16팀, 총 40팀이 참가해 3일 동안 열전을 펼쳤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대학일반부 농구연구소 팀과 무제한부 이수체인저스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수체인저스의 강병진 선수는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습니다. 강병진 선수는 “일반 대회와 달리, 흘러 타임으로 경기가 진행돼 확실히 다른 느낌”이라며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진행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흘러 타임이란?

득점, 파울, 볼 아웃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어도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경기 방식. 작전 타임이나 별도의 심판 재량 상황을 제외하면 경기 흐름이 빠르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



대학일반부 우승팀 '농구연구소'와 무제한부 우승팀 '이수체인저스'를 비롯한 수상팀들이 함께한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6' 시상식.

이수그룹 후원팀 출전, 스포츠 CSR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의미 있었던 장면은 이수그룹 후원팀의 출전과 우승이었습니다. 이수그룹은 대회 주최를 넘어 대학일반부 '이수챌린저스'와 무제한부 '이수체인저스' 두 팀을 직접 후원하며, 유니폼 제작과 훈련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수챌린저스는 대학생 선수들로 구성된 신생 팀이며, 이수체인저스는 국내 3X3 농구 무대에서 'COSMO'라는 이름으로 활약해 온 선수들이 이수그룹과 뜻을 모아 출전한 팀입니다. 그 결실은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수체인저스가 무제한부 정상에 오르며 뜻깊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또한 이수그룹은 훈련비 지원과 우승 인센티브를 더하며 선수들과의 장기적인 동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회 후원을 넘어, 선수들의 성장과 3X3 농구 생태계의 자립을 함께 고민하는 스포츠 CSR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KBA)가 '3X3 프라임 리그'를 시범 운영하며 정식 프로리그 출범을 준비하고, 3X3 농구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국내 3X3 농구의 저변이 넓어지는 가운데 이수그룹의 행보는 한국 3X3 농구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수체인저스 주장 이동윤 선수는 “이수그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3X3 농구 정식 프로리그 출범에 발맞춰 진정한 프로팀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제한부 우승을 차지한 '이수체인저스'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 (주)이수 김세민 대표이사.



'No Boss', 'Writer's Block' 등을 열창한 래퍼 '이센스'.



브레이킹 퍼포먼스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린 '진조크루'.



고난도 비보잉으로 무대를 달군 '갬블러크루'.



선수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며 스포츠로 연결된 이수챌린지페스타 3X3 2026 현장.

아트컬처로 마무리한 에너지 폭발 무대

이철편의 열기는 화려한 공연 덕분에 더욱 뜨거웠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한국 힙합의 거장 이센스와 브레이킹 댄스팀 진조크루, 갬블러크루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브레이킹 댄스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연 무대에서 진조크루와 갬블러크루는 고난도 퍼포먼스로 시민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진조크루는 이번 공연을 위해 LED 코트에 구현될 영상을 퍼포먼스에 맞춰 직접 제작하며, '이수 아레나'의 기술적 연출과 공연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이철편 3X3 농구대회를 연상시키는 3대3 비보잉 배틀이었습니다. 진조크루와 갬블러크루는 화려한 배틀을 펼친 뒤 서로를 리스펙하는 모습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한 래퍼 이센스가 등장하자 타임스퀘어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No Boss', 'Writer's Block' 등 대표곡으로 채워진 공연은 재치 있는 멘트와 어우러져 남녀노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잇고, 스포츠 생태계의 꿈을 키워가는 이철편

화려한 무대 위 스타부터 동네 코트와 운동장을 누비는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스포츠를 통해 만들어가는 세상은 훨씬 넓고 깊습니다. 이수그룹은 이철편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를 넘어, 아마추어 농구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열고, 선수를 후원하고, 시민과 함께 즐기며,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 이것이 이수그룹이 스포츠를 매개로 세상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이수그룹과 함께 성장할 이수챌린저스와 이수체인저스의 다음 행보, 그리고 더 진화할 이수챌린지페스타가 기대됩니다.

출범 30주년을 맞은 2026년, 이수그룹은 'Challenge & Change'의 정신으로 새로운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길 위에서 스포츠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선수들의 꿈을 키우며, 사회와 함께하는 이수그룹의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CHALLENGE 30 CHANGE 30

이수그룹의 비전을 공유할

공채 36기 신입사원 14명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이한 이수그룹은
‘Challenge & Change’의 가치 아래
2030년 시총 25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비전의 여정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해 꿈을 이뤄갈
14명의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주)이수 1명
이수화학 2명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명
이수페타시스 6명
이수애플즈 1명, 총 14명

성장의 길을 함께 다져갈 새내기 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이수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채현 선임

이수화학

김수겸에서
이수겸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수화학은 잊어라.
김수형이 왔다.

김수겸 선임, 김수형 선임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유일무이한
스페셜 한 회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스페셜 한 미소로
회사 분위기를
밝게 만들겠습니다.

배터리 사업으로
반도체 이익
따라잡겠습니다.

열정으로
스페셜티케미컬을
더욱 스페셜하게
만들겠습니다.



강명수 선임, 박성현 선임, 박민우 선임, 박준영 선임

이수페타시스



이지수 선임, 서형찬 선임,
윤홍민 선임, 김주예 선임, 장은욱 선임, 전희수 선임

이수앱지스



정지윤 사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소중한 순간

이수펫갤러리



제이화소, <구름이와 밍키> colored pencil on paper, 18×23cm

서로 다른 매력으로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는 구름이와 밍키.
두 아이가 건네는 애교와 골골송은 지친 일상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권순우 선임
(이수페타시스 노사협력팀)

밝은 하루를 선물해 준 애교냥이들

구름이&밍키

• 구름이(M) / 2023. 03. 16

• 밍키(F) / 2023. 06. 10



우리 집에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마리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느긋하지만 똑똑한 재주냥, 구름이

구름이는 이름처럼 안으면 몸을 쪽 늘어뜨리는 전형적인 랙돌입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누워 있는 걸 좋아하지만, 밥시간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밥 사랑' 고양이예요. 평소에는 예민하지 않는데 인터넷 소리만 들리면 소파 밑으로 황급히 숨는 모습이 또 너무 웃기고 귀여워요. 앉아, 손, 돌아, 하이파이브까지 할 줄 아는 나름 똑똑한 고양이랍니다. 커다란 덩치에도 행동은 한없이 귀여운 '왕 크니까 왕 귀엽다'의 주인공입니다.

폴짝폴짝 밍보르기니, 밍키

함께 사는 브리티시 숏헤어 밍키는 구름이와는 또 다른 감쪽한 매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신이 나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데, 속도가 워낙 빨라 '밍보르기니'라는 별명도 붙여줬습니다.

밍키에게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도 있어요.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수가 차 배가 심하게 부풀어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전염성 복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치사율이 95%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 사실상 불치병이라 막막했지만, 해외 사이트에서 신약을 주문해 매일 저녁 직접 주사를 놓으며 약 90일을 함께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밍키는 저와 생일이 같아 매년 생일파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바꿔준 나의 일상

두 아이는 사람을 거의 경계하지 않을 만큼 친화력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다 깬 얼굴로 뛰어나와 반겨주고, 코인사와 애교도 자주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제가 지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조용히 옆에 와서 골골송을 들려주는데, 그럴 때마다 큰 위로를 받곤 합니다.

고양이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전보다 더 부지런해지고, 성격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입사한 것처럼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고양이님들에게 조공을 자주 바치는 편입니다. ㅎㅎ 앞으로도 구름이, 밍키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반려동물 스토리와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소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반려동물의 모습을 작가의 손그림 액자로 담아 드립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음악은 귀로 하는 영혼의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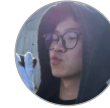
인생음악 공유해요!



어떤 음악은 내 일기장 같은,
딱 지금 내 맘 같은 그런 곡이 있습니다.
허공에 보낸 하소연에 돌아온
시크한 답장 같은 가사.
그 한 대목을 만나는 순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받거나 응원을 얻거나
다 괜찮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음악을 공유합니다.

강렬한 리듬과 에너지 한계 앞에서 한 뼘 더 넘어설 용기

전지윤 선임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환경팀



요즘은 퇴근 후 헬스와 테니스를 즐기며 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 유도나 복싱 같은 투기 종목에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사내 동아리 e-스포츠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팀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습하고 있는데, 함께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기가 되고 있습니다.

Oh The Larceny - Man on a Mission

운동을 하던 중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강렬한 리듬과 에너지가 운동과 정말 잘 어울려 자연스럽게 자주 듣습니다. 특히 힘이 빠질 때나 마지막 한 세트를 더 해야 하는 순간에 들으면 한계를 조금 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은 운동할 때 가장 먼저 재생하는 플레이리스트의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특정 가사 한 구절보다도 노래 전체에서 느껴지는 강한 에너지와 분위기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누구나 지치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comment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도 큰 힘이 되는 곡이라 많은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Man on a Mission

Oh The Larceny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나에게로의 초대
조유진 (체리필터), 박기영



널 지워야해
창모

You better know

레드벨벳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ADORE U
NMIXX



이분의 일
여자친구

느리게 피어난 저 들꽃처럼 천천히 쉬어가도 돼

주현주 사원 | 이수앱지스 CMC팀 분석파트



작년 1월 입사해 정신없이 1년을 보내고, 어느새 2년 차의 두 번째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는 길지만 일주일과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데요. 남은 2026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그만두었던 요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몸이 따라주지 않지만,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요즘 저의 소중한 행복입니다.

레드벨벳 - You better know : 2017년 7월 발매
몇 해 전 여름, 강원도 동해로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적한 바닷가에 앉아 이 노래를 들었는데, 뜨거운 공기와 시원한 바닷바람, 밝고 청량한 노래 분위기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노래 자체도 전체적으로 밝고 시원한 느낌이라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사가 좋은데요. 특히 “서투른 아이처럼 헤매는 건 당연해... 천천히 쉬어가도 돼”라는 가사가 좋아요. 낯선 길에서 헤매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해 힘이 됩니다.

comment

초여름 혼자 바라보던 바다의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렸던 그때의 기억 덕분에 이 곡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좀 겁이 나지만 그건 나의 그림자 떠오르는 태양이 밀어줄 테니까

최재웅 선임 |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부서 배치를 받은 지 3주 차, 열심히 업무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되지만, 사회인으로 한층 성장하는 것 같아 설레기도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까워지며 점점 이수의 일원으로 잘 녹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나날들입니다.

벨로 - PAGE 0 : 2026년 5월 발매

사실 이 곡은 제가 직접 작사·작곡해 발매한 노래입니다. 대학 시절 흑인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직접 가사를 쓰고 공연을 하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발매한 곡들 모두 애착이 가지지만, 이 곡은 사회인으로 첫 장을 여는 설렘과 떨림을 떠올리며 만든 노래입니다. 슬기로운 신입 생활에 적응하는 요즘, 새로운 미션 앞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믿고 이겨내자는 마음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쓴 노래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comment

이 노래를 들으면 이수에 입사했을 때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으며 회사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힘을 얻게 될 듯합니다.

PAGE 0

벨로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Shower Song
홍다빈



소리쳐
kid wine



모과
백현진



최재웅 선임의
자작곡 <PAGE 0>
QR코드로 들어보세요.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함께 나누면 환해지는 **우리**



우리는 수많은 <우리> 사이의 존재입니다.
잔잔하게 오는 뭉클한 감동
짜릿하게 휘감는 환호의 순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어지는 사이...
이수 가족 한사람 한사람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넌지시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최민지 대리(이수앱지스 R&D전략팀)

...



2026 화랑 미술제 - 짧지만 충분했던 휴식의 순간

2026년의 상반기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하반기기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주말에 전시를 보러 가는 것이 취미였지만, 바쁜 일정에 쫓겨 한동안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랑미술제 VIP 초청장을 받아 모처럼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화랑미술제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작품 가운데 김산, 위정선, 서연 작가의 작품은 특히 편안한 위로와 힐링을 전해주었습니다.

작품들을 마주하며 휴식이 주는 힘을 다시 깨달았고, 다가올 하반기를 새롭게 맞이할 든든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재충전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분께 이 글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 속 작은 침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침이 남은 한 해를 더 힘차게 이어갈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화랑미술제 #문화생활 #직장인취미 #일상속침표 #위정선작가 #김산작가



전재현 대리(이수건설 CM팀)

...



올해 어린이날 찾아온 가장 큰 선물, 유주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 부부에게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딸 유주입니다.

어린이날에 태어나줘서, 앞으로 생일마다 온 세상이 함께 축하해 줄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화사해지고 든든합니다.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의 떨림과 벅찬 마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손과 발,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요즘 매일 밤잠을 설치며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유주가 자다가 씩 웃는 그 짧은 순간 하나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힘든 날에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다시 웃게 됩니다.

이제 막 50일을 넘긴 우리 유주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웃으며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가족이라는걸, 유주 덕분에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선물 #초보아빠일기 #딸바보입문 #건강하게 #가족이힘이다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나도 혹시 천재일까? 뇌섹 이수인 소환!



이 퍼즐은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이 세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줄에는 네 개의 도형이 있으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의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도형은 무엇일까요? 아래 보기 중 정답을 골라 보세요.

			?

1	2	3
4	5	6



논리 퀴즈 정답

Quiz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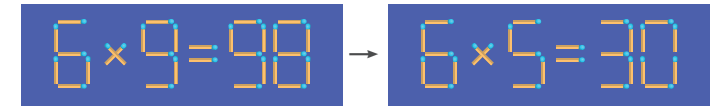
왼쪽의 다섯 자리 숫자 중 짝수만 더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28686은 $2+8+6+8+6=30$ 이므로 정답은 30입니다.

정답: 30

Quiz2

성냥개비 3개를 제거하면 올바른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의 9에서 성냥개비 1개를 제거해 5로 만들고, 오른쪽의 9에서 1개를 제거해 3으로, 8에서 가운데 성냥개비 1개를 제거해 0으로 만들면 식은 $6 \times 5 = 30$ 이 됩니다.

정답: $6 \times 5 = 30$



추리 퀴즈 정답

Quiz3 30주년 기념 케이크 '한 조각의 진실'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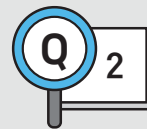
회의 기록에 따르면 김과장과 정대리는 19:00~19:20 동안 함께 회의실에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알리바이는 확인됩니다. 또 이대리와 박차장은 서로가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둘 중 한 명이 범인이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명이 되어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러 들렀다고 말한 최과장만이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정답: 최과장



박정빈 책임(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이규환 사원(이수화학 제품연구2파트)
이슬 선임(이수스페셜티케미컬 영업지원팀)
정규하 사원(이수페타시스 설비파트)
천승열 차장(이수건설 경영기획팀)

회의실 중앙의 이상한 디지털 숫자



이수그룹 계열사 임직원 4명이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세 자리 디지털 숫자가 표시된 작은 전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전광판을 바라보자, 보는 방향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자신이 본 숫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김대리	“제가 본 세 숫자는 모두 홀수입니다.”
B		박차장	“제가 본 세 숫자의 합은 16입니다.”
C		임과장	“제가 본 세 숫자의 합은 13입니다.”
D		정부장	“제가 본 숫자 중 짝수는 2개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단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수인의 브레인 체조 <이수더지니어스>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Q1~2를 모두 맞힌 분 중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sinew@isu.co.kr (퀴즈 응모 마감: 8월 10일)



(사진출처: 올리로 '라이팅 룸')

빠른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좋은 문장을 손으로 옮겨 쓰는 시간

요즘 가장 힙한 일, 천천히 읽고 손으로 쓰는 일

짧은 영상과 빠른 콘텐츠가 일상이 된 시대,
오히려 책을 읽고 문장을 따라 쓰며
나만의 속도로 생각을 정리하는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텍스트 힙(Text Hip)'.

하루의 대부분을 화면 앞에서 보내는 우리에게,
종이 위에 문장을 적는 시간은 낯설지만 반가운 감각입니다.

〈이수 텍스트 힙〉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임직원 여러분이 직접 좋은 문장을 필사해 보는 참여형 코너입니다.
오래 곱씹고 싶은 문장을 소개하고,
그 문장을 직접 손으로 옮겨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한 줄의 사색으로 시작하는 작은 디지털 디톡스.
오늘의 문장을 나만의 속도로 써 내려가 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필사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보에 수록된 문장을 따라 쓰고, 완성한 필사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출 내용 : 필사 사진 1~2장 + 짧은 소감 (선정된 필사는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선정된 분께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접수기간: 8월 20일까지)

안개가 걷힐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의심이 들 때는
고요히 머물며 기다려라.

그 의심이 더 이상
네 안에 남아 있지 않을 때,
그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안개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동안에는
잠시 멈추어 있으라.

햇빛이 스며들어
그 안개를 걷어낼 때까지,
그 순간이 반드시 올 때까지
고요히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
용기를 내어 행동하라.

폰카(Ponca)족 추장 화이트 이글의 말로 전해지는 문장.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더 분명히 나아가기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따라 쓰며, 지금 내 앞의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목젓부터 식도 거쳐 등골까지 오싹 한 그릇에 담긴 여름 바다 물 회

축 처진 어깨로 견디던 맹렬 땀별도
그럭저럭 봐주게 되는 특별식
빙수보다 시원하고, 아이스크림보다 서늘하여
눈이 반짝 환해지는 보양식!
머리, 더위는 식히고 가슴, 배는 채우는
한 대접의 힐링
여름날 저녁 한때, 누구와도 좋을 터!



빙수보다 시원한, 수박보다 서늘한

먹거리로 누리는 색·성·향·미·촉에
이토록 충실히 진심인 음식이 몇이나 될까?
오색 야채를 듬뿍 깔고 그 위 쫄득 쫄깃한 회,
거기다 눈꽃 슬러시처럼 살얼음 진 고추장맛 진한 국물을
잘박하게 부어주면, 눈으로 한차례 스캔한 비주얼만으로도 벌써 목덜미가 서늘!! 향 그윽
이 퍼지는 깻잎이나 양파 같은 야채에 막 썰어 얹은 실한 회를 버무려 첫 한입을 크게 떠
서 맞이하면 새콤달콤 쫄득오독의 하모니가 아호, 아찔하게 황홀합니다.

매운맛에 얼얼, 얼음 기운에 얼얼. 볼 안쪽 점막부터 목젓까지 스민 냉기를 달랠 마지막
몇 숟가락 밥을 말아 먹고 나면, 상복부를 지긋이 눌러주는 흔쾌하고도 흐뭇한 포만감에
이 징글한 여름도 “다 지나가리...” 혈령하게 관대해진 아량과 숨어 있던 낙천, 선의... 뭐
이런 것들에 섞이어 뭐든 해낼 기운이 차오릅니다. 물회 이야기입니다.

물회의 아버지, 생선회의 기원

물회를 논하기 전 거쳐야 할 관문은 바로 회!!겠지요. 불과 조리도구가 충분히 발달하기
전, 인류의 조상들은 강이나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날것으로 먹었을 터, 이것이 생선회의
기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회를 먹은 초기 흔적은 고고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대략 신석기 시대 약 1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해양 자원을 적극 활용
하며 생선을 날것으로 먹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시미(刺身)가 발달했습니다. 에도시대를 거치며 섬세한 기술과
미적 감각을 갖춘 생선회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고급스러운 요리 이미지를 덧입
혀 세계화된 결과, 회라고 하면 일본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를 뜻하는
영어가 사시미(sashimi)인 것만 봐도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송나라 때
까지는 생선을 날것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공자 관련 문헌에도 회에 대한 언급
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에서는 익혀 먹는 음식 문화가 훨씬 일반화되었고, 생
선이든 육류든 채소든 익혀 먹는 방식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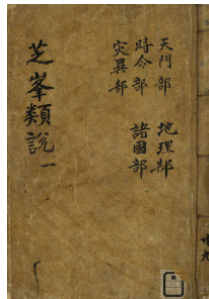
조선시대 수라상과 잔치상에 오른 어회(魚膾)의 재료들 (웅어, 농어, 쏘가리, 송어)

우리 조상들의 회 문화

사실 **회(膾)**는 쇠고기 등 육류의 살코기를 양념으로 버무려 먹는 **육회(肉膾)**, 육류 내장이 나 문어, 소라, 전복 등의 해산물을 살짝 익혀 먹는 **숙회(熟膾)**, 홍어회처럼 발효시킨 회를 아우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회 문화를 즐겨왔습니다. <지봉유설>에 “중국인은 회를 먹지 않는다. 말린 고기라도 반드시 익혀 먹고, 조선 사람이 회를 먹는 것을 보고 웃는다.”는 기록이 있어 육회 등 회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생선회를 뜻하는 어회(魚膾) 관련 기록이 남아 있으며, 웅어, 농어, 쏘가리, 송어 등으로 만든 어회가 수라상과 잔치상에 올랐다는 기록도 있어 우리 조상들의 생선회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금니와 승부하는 활어회 vs 미각 돌기에 헌신하는 숙성회

생선회는 먹는 방식에 따라 활어회, 숙성회, 선어회 등으로 나뉩니다. **활어회**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생선을 잡아 바로 뜯 회입니다. 사후경직이 막 시작된 상태에서 회를 뜬면 단단한 육질이 유지돼 쫄깃고들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조에서 생선을 고르고 회 뜨는 과정을 지켜볼 정도로 활어회를 선호해왔습니다. **숙성회**는 회를 뜬 뒤 일정 시간 냉장 숙성시킨 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나는 감칠맛 성분은 실로 우아합니다. 일본에서 선호되는 방식이며, 오마카세에서 내는 고급 회도 대다수 숙성회입니다. **선어회**는 잡은 뒤 신선도를 유지해 보관한 생선으로 만든 회를 말합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안정적인 맛이 특징입니다. 시중 물회에는 선어회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봉유설>
조선 중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
1614년 편찬한 백과사전적 저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입안 가득 바다향, 물회

과거 동해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 몇 가지 기본 양념만 배에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날 잡은 생선을 썰어 양푼에 넣고 고추장에 비벼 먹다가, 반쯤 먹고 나면 물을 부어 밥을 말아 먹었고, 이 방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오늘의 물회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회에 오이, 배, 깻잎, 부추 등 각종 채소를 넣고 고추장이나 된장 양념 육수를 부어 먹는 대표적 여름 음식이 바로 물회조. 취향에 따라 소면이나 밥을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합니다.

같은 듯 다른 맛, 지역별 물회의 특징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내륙 지역에서는 회를 물에 말아 먹는 것 자체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물회가 지역 별미로 알려지면서 향토음식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생선 종류와 양념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선한 회와 시원한 육수가 주는 청량함은 물회의 공통된 매력입니다. 오늘날에는 산지보다 식당마다 쌓아온 양념과 육수의 내공이 인기를 좌우합니다.

강원지역 | 강릉, 삼척, 속초 등지의 해안에서 잡히는 생선을 초고추장 베이스로 새콤달콤하게 먹습니다. 그때그때 잡힌 잡어나 세꼬시를 쓰지만 **목호**에서는 **청어**, **주문진**에서는 **한치**가 물회의 주재료로 쓰입니다.

경북지역 | 포항을 중심으로 계절 야채 위에 회를 얹고, 고추장 또는 된장 양념을 더해 자작하게 먹거나 육수 없이 비벼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릉도 콩치물회**, **과메기물회**도 경북지역의 별미로 꼽힙니다.



한치물회



비벼 먹는 울릉도 콩치물회

경남지역 | 된장을 기본으로 한 담백한 육수를 쓰며, 취향에 따라 밥 또는 국수를 넣어 비벼 먹습니다. **통영, 남해 일대**에서는 굴이 제철일 때 **굴물회**를 즐깁니다.

제주지역 | 생된장을 풀어 국에 가깝게 먹는 것이 특징이며, 한치, 해삼, 소라, 자리돔 등이 주재료가 됩니다. **자리물회**는 뼈째 썬 자리돔을 식초에 버무려 뼈가 말랑해지면, 갇은양념을 한 된장 육수에 얼음을 띄워 먹는 별미로, 오독오독 씹는 맛과 **제피 잎의 향이 매력**입니다.



겨울에 즐기는 굴물회



제피 잎 향이 매력인 자리물회

물회는 물회인데 생선이 아니라고?

그렇다네요. 경주를 중심으로 소고기 육회로 만든 물회도 이목을 끄니다. 육회물회는 육회에 채소, 살얼음 육수를 더해 새콤하고 시원하게 즐기는 이색 메뉴입니다. 생선회 대신 육회를 넣어 익숙한 물회의 형식을 비틀면서도, 차가운 육수와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지는 물회 특유의 매력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잠실야구장 매장, 경주 황리단길, 강릉 중앙시장 등에서는 컵에 담아 간편하게 먹는 형태로도 선보이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에서도 여름 메뉴로 육회물회를 내놓는 등 물회의 재료와 방식은 한층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회를 닮은 다른 나라의 요리

태국 | **얌 뽈라 디(Yum Pla Dib)**: 신선한 생선을 라임즙, 피시소스, 고추, 허브 등에 무쳐 먹는 태국식 생선회 샐러드입니다. 새콤매콤한 맛과 산뜻한 식감이 물회와 닮아 있습니다.

필리핀 | **키닐라우(Kinilaw)**: 신선한 생선을 식초나 감귤류 즙에 재워 먹는 음식입니다. 산미가 강하고 시원하게 즐긴다는 점에서 물회와 비교하기 좋습니다.

페루 | **세비체(Ceviche)**: 생선이나 해산물을 라임즙에 절이고 양파, 고추, 채소 등을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생선회 요리입니다. 새콤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입니다.

베트남 | **고이 까(Goi ca)**: 얇게 썬 생선에 라임, 허브, 고추, 땅콩 등을 곁들여 먹는 생선 샐러드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산뜻한 양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물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키닐라우 (foxyfolksy.com)



페루 세비체 (muydelis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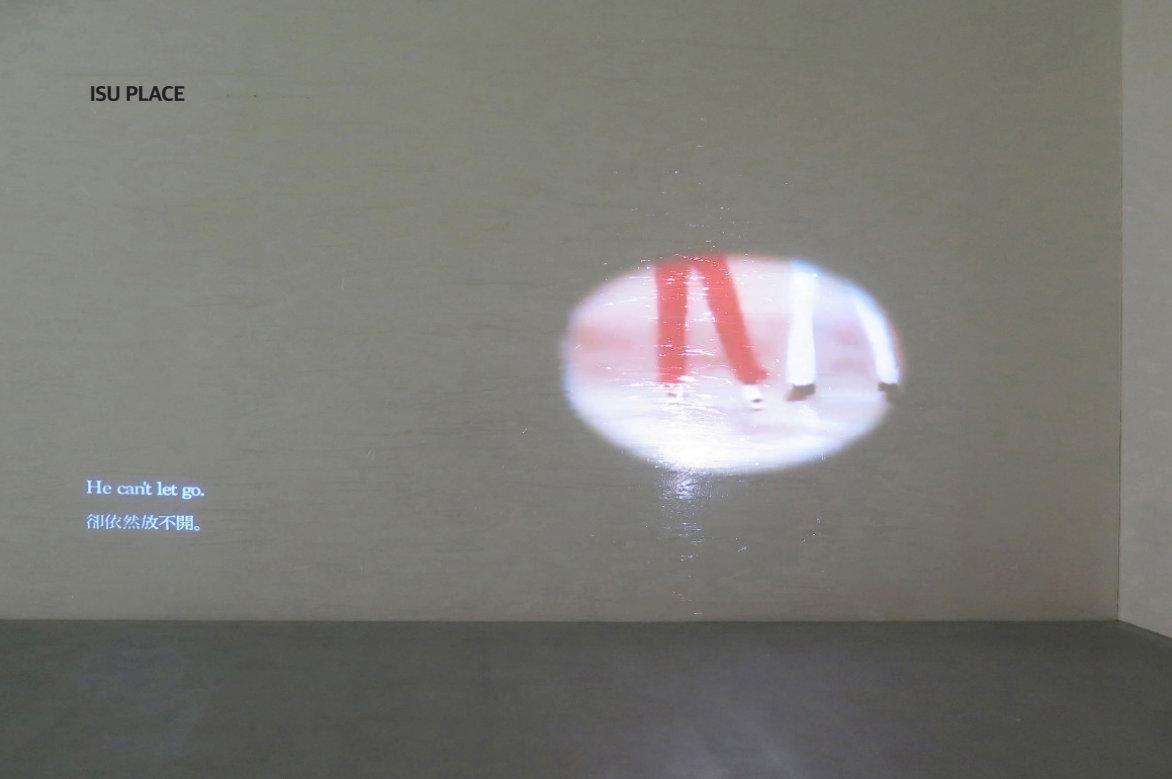
베트남 고이 까 (exotrails.com)

퓨전 물회, 변형 물회... 예술미식으로 재탄생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적인 형식을 벗어나 물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더욱 다채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양식 조리 감각을 더한 물회면 등 새로운 레시피와 창의적 접근을 통해, 물회는 **오감을 확장하는 예술미식**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한 그릇에 담긴 여름 바다는 시대와 취향을 따라 또 다른 맛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반상(Bansang)의 물회면
(출처: Instagram @annette.chew 캡처)



리킷, <댄스(Dance)>, 2025, 루프 프로젝션, 사운드, 투명 포장 테이프, 가변 크기. 사진: Shigeo Muto. 작가 및 ShugoArts 제공.

리킷 개인전 곧 흘러가 버릴 날들을 천천히 곹씹으며

Chewing a day for hours before it slips off

2026. 8. 4 - 2026. 10. 8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는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홍콩에서 태어나 대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리킷의 개인전 <곧 흘러가 버릴 날들을 천천히 곹씹으며>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슬픈 미소의 울림>(아트선재센터, 서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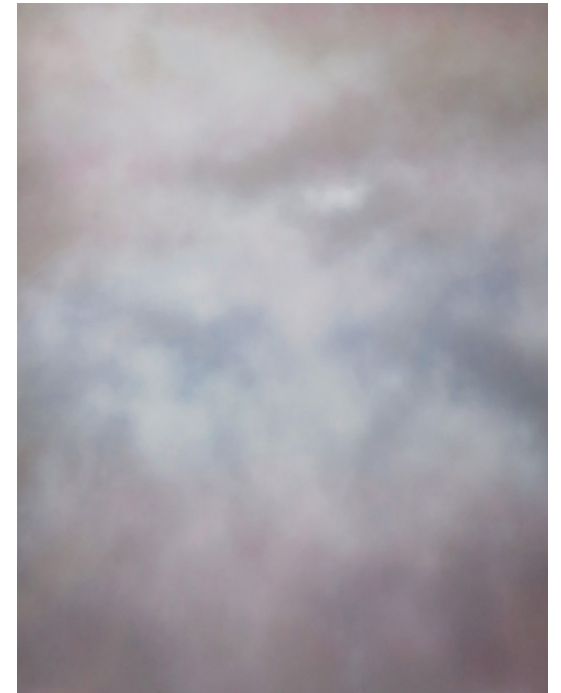
한국에서 열리는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영상과 빛, 사운드, 텍스트, 회화 등

다양한 매체가 결합된 설치와 최근 발전시켜온 산업용 스프레이 페인트 회화를 함께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린 회화

전시는 작가가 스페이스 이수를 찾아 오랜 시간 머물며 축적한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리킷은 전시장의 구조와 빛, 시간의 흐름,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작품을 구성했고, 도심 속 로비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과 창밖의 도시 풍경을 전시 안으로 끌어 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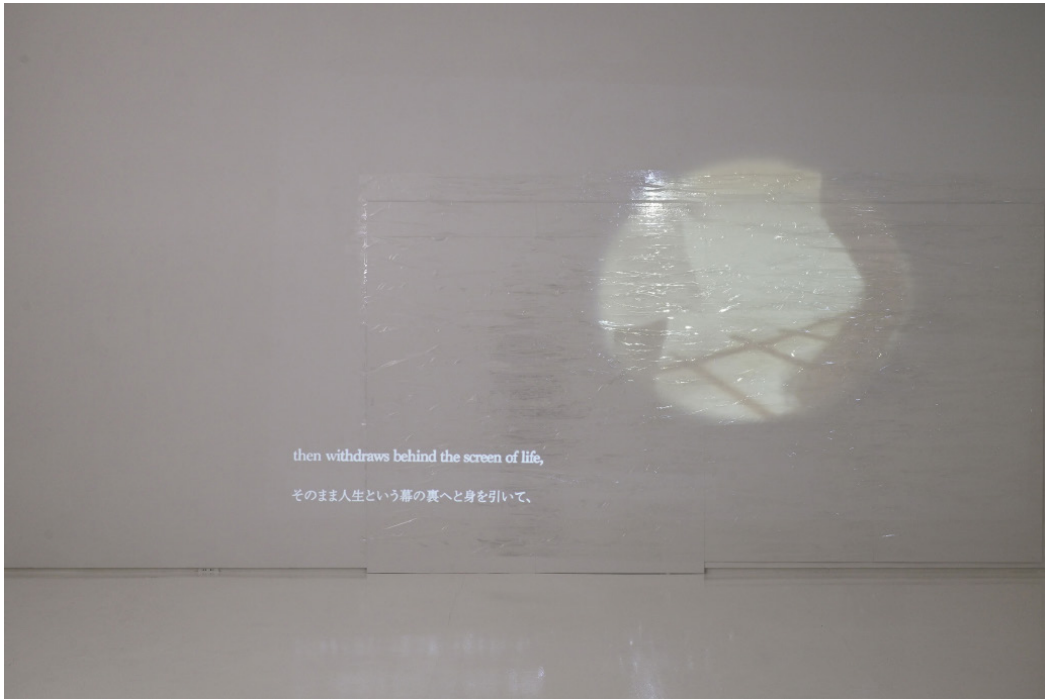
공간의 전면 유리창에는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그린 회화가 펼쳐집니다. 여러 겹의 물감으로 이루어진 반투명한 색면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광과 만나 전시장 내부에 섬세한 빛과 그림자의 층위를 만들어냅니다. 유리 너머의 풍경은 회화와 겹쳐 새로운 풍경을 이루고, 실내와 실외,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느슨하게 연결합니다.



리킷, <A blank stare (24)>, 2026,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 파스텔, 150 × 115 × 3 cm. 작가 제공.

누군가의 기억 속 한 장면을 마주한 듯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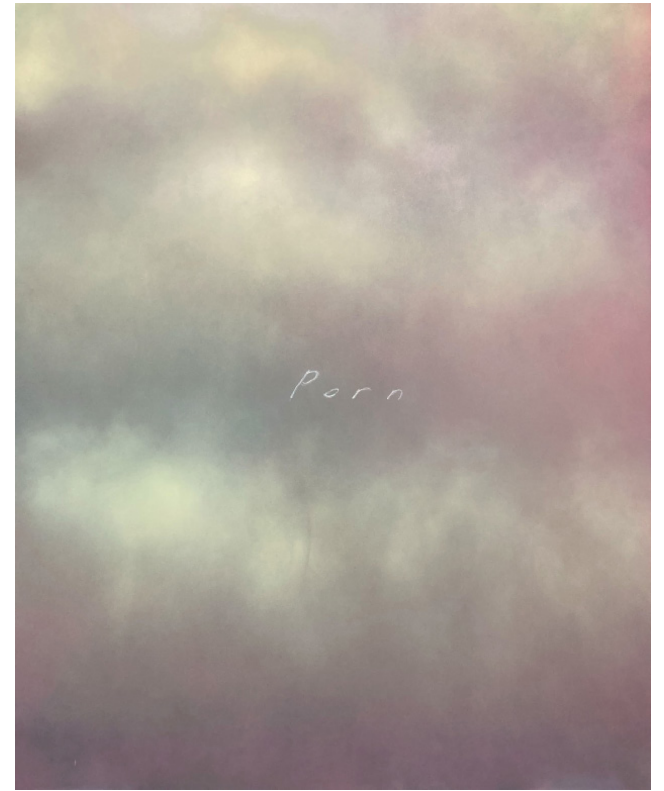
이처럼 리킷은 일상적인 재료를 회화를 담는 표면으로 전환하고, 재료가 지닌 고유한 물성을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합니다. 벽면을 덮은 카펫 또한 이러한 작업 방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매끈한 벽이나 스크린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물성을 만들어내는 카펫의 짧은 섬유는 투사된 영상을 미세하게 분산시키며 화면에 노이즈를 연상시키는 입자감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영상은 오래된 필름과 같은 질감을 띠고, 관람객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 한 장면을 마주한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리킷, <댄스(Dance)>, 2025, 루프 프로젝션, 사운드, 투명 포장 테이프, 가변 크기. 사진: Shigeo Muto. 작가 및 ShugoArts 제공

사라져 버리기 쉬운 감정과 경험을 붙잡아두기

함께 선보이는 회화는 금속판 위에 빠르게 마르는 산업용 스프레이 페인트를 여러 차례 겹쳐 올려 완성됩니다. 물감을 흡수하는 캔버스나 종이와 달리 금속판 위의 색은 표면에 머무르며 미세하게 어긋나는 층을 이룹니다. 균질하게 반짝이는 금속성의 화면은 구체적 인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 빛과 공기, 시간의 흔적을 품은 하나의 층위로 드러냅니다. 여기에 투사된 영상이 중첩되면서 회화의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금속판 위의 색에는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자연광이 더해져 매 순간 다른 장면으로 다시 편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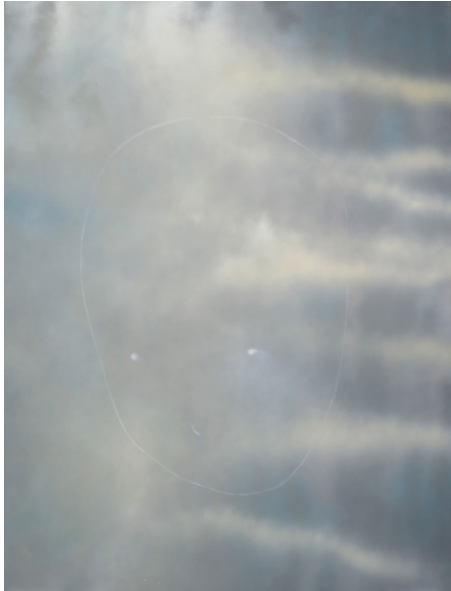


리킷, <폰(Porn)>, 2026,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 파스텔, 130 × 105 × 3 cm. 작가 제공.

우리가 놓인 '여기'를 둘러싼 성찰

텍스트 또한 리킷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상과 회화에 등장하는 짧고 모호한 문장과 단어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관람객의 기억과 경험을 환기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 작동합니다. 공간에 흐르는 리킷이 직접 연주 하고 녹음한 기타 사운드 또한 전시장에 머무는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설치된 작품 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냅니다.

《곧 흘러가 버릴 날들을 천천히 곱씹으며》라는 전시 제목처럼, 작가는 사라져 버리기 쉬운 감정과 경험을 붙잡아두려 합니다. 서로 겹쳐지는 회화, 영상, 빛, 텍스트, 사운드는 일종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전시는 하루가 끝날 무렵 사라지는 감정들, 언어 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적 정서, 공백과 침묵을 향한 욕망, 그리고 우리가 놓인 '여기'를 둘러싼 성찰을 시도합니다.



리킷, <1>, 2026, 알루미늄 위에 스프레이 페인트, 파스텔, 150 × 115 × 3 cm. 작가 제공.

리킷 (Lee Kit)

1978 홍콩 출생, 현재 타이베이에서 거주하며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리킷은 2000년대 초 핸드-페인티드 클로드(hand-painted cloths) 시리즈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당 작업을 위해 당시 손으로 줄무늬나 격자무늬를 그린 천을 커튼, 식탁보, 돗자리 등 일상의 용품으로 사용하거나, 2004년 7월 1일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는 현수막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사물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맥락은 오늘날까지 그의 작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작가는 일상의 오브제와 이미지, 영상, 빛, 회화, 텍스트,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 세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는 일상과 동시대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태도를 유머러스하고 정적인 제스처로, 때로는 분명한 분노의 감정으로 드러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변에 자리한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학력

2006 홍콩중문대학교 미술학 석사 졸업
2003 홍콩중문대학교 미술학과 학사 졸업

주요 개인전

2025 프리데리치아눔, 카셀, 독일
2023 홍가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2021 웨스트 덴하그, 헤이그, 네덜란드
2018 S.M.A.K, 겐트, 벨기에
2018 하라미술관, 도쿄, 일본
2016 워커아트센터, 미니애폴리스, 미국
2013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홍콩관

주요 단체전

2024 Forms of the Shadow, 비엔나 세체시온, 오스트리아
2021 Carnavalesca - What Painting Might Be, 함부르크 쿤스트페어라인, 독일
2019 제15회 리옹비엔날레, 리옹, 프랑스
2017 카트만두 트리엔날레, 카트만두, 네팔
2015 샤르자 비엔날레, 샤르자, 아랍에미리트

이수 간식 참고

당선 후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화학 영업팀

문승연 선임



선후배 소통 자리, 슈퍼 매개 이수 간식!!

안녕하십니까, 이수화학 영업팀 문승연 선임입니다.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항상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 내 전원이 모여 나눌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활력을 위해, 그리고 새내기 후배의 빠른 직장 생활 적응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간식 이벤트를 신청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그동안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부족해 아쉬웠는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랜만에 함께 모여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덕분에 잘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신청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그룹 전 계열사 부서 및 팀의 간식 신청 사연을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8월 20일까지, 발표: 8월 말)
우리 팀 자량과 함께 '간식이 필요한 이유'와 치킨, 피자, 커피 음료 등 '원하는 메뉴'를 사연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당선된 사연 및 사진, 간식 후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우리 팀에게 쏘세요!!



이수앱지스 연구지원파트 황성한 사원



6인의 완전체 팀, 달콤한 에너지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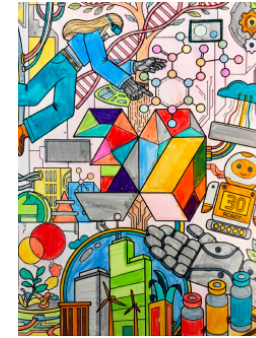
작년 8월 조직개편 당시만 해도 저희 팀은 파트장님을 포함해 단 3명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조직이었습니다. 이후 11월 새로운 과장님이 합류하고, 올해 2~3월에는 육아휴직자들의 복귀를 거쳐, 현재 6인의 완전체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귀한 구성원들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 덕분에 팀 분위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예전에는 '회식 없는 팀'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며 편하게 소통하는 팀으로 변화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 내에서 연구 QA와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진심인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용소방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방서장 표창까지 수상하는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 부담스럽던 때, 마침 간식 이벤트에 당첨되어, 시원한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맛있는 한 끼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달콤한 간식으로 에너지도 충전하고, 팀워크도 한층 더 다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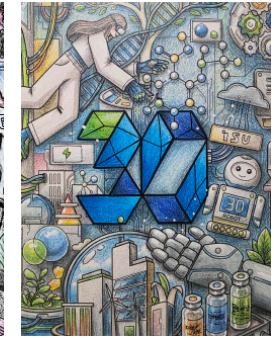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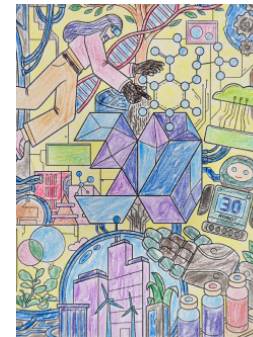
김민우 수석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생산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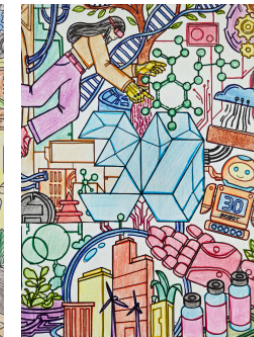
남기모 책임
(이수화학 재경팀)



노기성 담당
(이수앱지스 관리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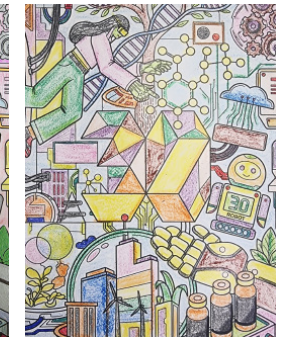
노향택 기정
(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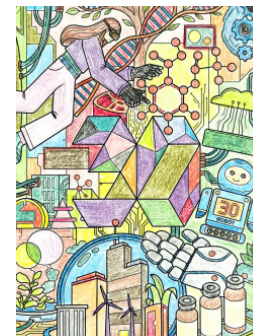
박병선 기정
(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양희교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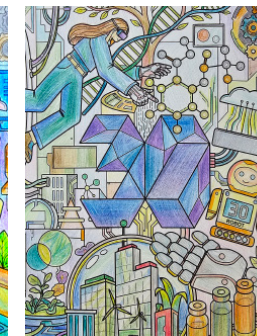
이원태 기정
(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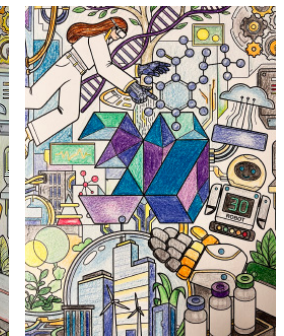
이재영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검사팀)



임윤희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정규하 사원
(이수페타시스 설비파트)



천홍기 사원
(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컬러링을 한다



인증샷을 찍는다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이메일 : sinew@isu.co.kr

2026년
봄호 당첨자
(※가나다순)

- 김민우 수석(이수스페셜티케미컬 생산파트)
- 남기모 책임(이수화학 재경팀)
- 노기성 담당(이수앱지스 관리담당)
- 노향택 기정(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 박병선 기정(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 양희교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 이원태 기정(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파트)
- 이재영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검사팀)
- 임윤희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 정규하 사원(이수페타시스 설비파트)
- 천흥기 사원(이수페타시스 설비자동화팀)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가을호 원고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 상기 일러스트는 <한여름 코트 위, 도전의 순간을 색으로 채우다>로 시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GARMIN

WE'VE GOT SOMETHING FOR EVERYONE

당신을 위한
Garmin 스마트 워치



가민 Offline 브랜드샵

가민 브랜드샵대전점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 엑스포아트홀

가민 브랜드샵잠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7층

가민 브랜드샵부산 본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5층

가민 브랜드샵소공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가민 브랜드샵강남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8층

가민 브랜드샵센텀시티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4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 1층

가민 브랜드샵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124 갤러리아 광교 5층

가민 브랜드샵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039 롯데 타임빌라스 의왕점 1층

가민 브랜드샵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7 롯데백화점 동탄점 5층



isugbs.co.kr